국민연금기금운용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2017년도 제4차 회의록)

1. 일　　시 : 2017년도 5월 25일(목) 07:58~09:48

2. 장　　소 : 포시즌스호텔 서울 누리볼룸1(서울 종로구)

3. 참석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부위원장
국민연금공단	이원희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송원근 위원
중소기업중앙회	김광희 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광호 위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혜경 위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이인상 위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수현 위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김병욱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윤경식 위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위원
바른사회시민회의	조성봉 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김준경 위원

4. 불참위원 :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기획재정부	代 이찬우 (최상목)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위원
고용노동부	고영선 위원

5. **배 석 자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장재혁(간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양윤석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강면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 이수철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장호연

실무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원종욱

6. **보고안건 :** 〔의결17-4호〕 국민연금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2018~2022)

〔의결17-5호〕 2018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

〔보고17-13호〕 2017년도 제3차 회의록(요약)

〔보고17-14호〕 2017년도 3월말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잠정)

7. 회의경과

(회의시작 07시 58분)

○ **장재혁 간사 :** 지금부터 2017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장인 장관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이신 김상호 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호 부위원장 :**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입니다. 우선 이른 아침에 저희 많은 위원들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행에 앞서서 처음 저희 위원회에 참석하신 한 분 위원을 새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으로 한국노총 정광호 사무처장님이 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 **정광호 위원 :** 안녕하십니까?

(일동 박수)

○ **김상호 부위원장 :** 네. 저희 위원들을 대표해서 환영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의결안건 2건하고 보고안건 2건으로 총 4건이 처리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의결안건은 국민연금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에 관한 것입니다. '18~'22년까지 향후 5년간 거시경제를 전망하고 이에 근거하여서 목표수익률과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설정하는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안건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거시경제전망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추진 현황을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될 안건에 대해서 지난 5월 18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해서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거시경제 전망 하에 자산군별 기대수익률과 변동성 수치를 산출한 후 목

표수익률을 달성하면서도 위험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자산배분(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검토한 자산배분(안) 수립방안은 투자위험 분산 및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투자다변화를 추진해 온 기존 정책방향과 동일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자산 투자집중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주식과 국내채권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해외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 하에서 자산군별로 2022년 목표비중을 설정하고 연도별로 이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검토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의결안건은 2018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금번에 마련한 중기자산배분(안)에 근거해서 내년도 수입, 지출, 여유자금 운영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오늘 심의·의결한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 **장재혁 간사 :** 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취재진들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보고사항 : 『2017년도 제3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 **김상호 부위원장 :** 우리가 지난번에 늘 했던 것처럼 제3차 회의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천천히 한 번 읽어봐 주시고 식사 후에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찬 중)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서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의록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2017년도 3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채택하고 1년 후 공개 예정인 속기록도 미리 송부해 드린 내용

대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심의사항 : 『2018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

○ **김상호 부위원장 :** 다음으로 『2018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혁 간사 :**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별도 책자의 『2018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사실 이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쭉 논의하셨던 자산배분(안)을 토대로 내년도의 운용계획(안)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고,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하단에 국가재정법 제66조 제5항에 따라서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해서 내년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전체적으로 2018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을 이 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계획(안)에 보시면 우선 자체수입이 60조 7,036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보험료 수입이 44조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자 및 재산수입, 주로 채권 쪽의 이자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게 한 16조 6천억 원, 그다음에 잡수익과 융자원금회수가 일부 있습니다. 주로는 연금보험료와 그다음에 채권이자수입의 내용이고 정부에서 기재부로부터 우리 공단의 운영비로 매년 100억 원씩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 회수, 주로 채권 만기가 돼서 돌아오는 돈이 한 47조 원, 그 외에는 단기성 대기자금으로 운용했던 것을 다시 찾아서 운용하는 것, 그다음에 위탁투자에 일부 회수되는 것 해서 주로는 채권만기회수자금이 한 47조 원 됩니다. 25쪽은 대략 쭉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26쪽까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출 쪽을 보시면 연금급여로 20조 2천억 원 정도가 지출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까지 이 돈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한 44조 원은 보험료 수입이고 연금급여로 나가는 게 20조 원쯤 되니까 한 24조 원 정도는 이게 자체로 쌓인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사업비, 공단이 주로 사업하는 건데 공단이 전주로 이전했을 때 사옥 확보하는 사업이라든지 기타 복지사업은 사실 청풍리조트에서 일부 약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업무를 4대 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 일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단에 지출되는 위탁비용도 부담하고 있고, 그리고 밑에 하단에 운영비는 주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 인건비, 그래서 그게 한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와 사업비의 재원은 기금에서 쓰는 겁니다. 정부 일반회계로부터는 그중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00억 원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의 인건비, 사업비는 기금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28쪽에 연금 급여로 20조 2천억 정도인데 그것의 상세한 내역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이렇게 구성되고 그리고 사업비의 자세한 내역은 사옥 확보라든가 제도운영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29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 지금 이렇게 지출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결국 또 별도로 저희가 5월 31일까지 기재부로 제출하면 또 기재부와 예산 심의하듯이 계속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픽스는 아니고, 그다음에 또 국회에 갔을 때 이 내용이 국회예산하고 기금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30쪽, 그래서 전체 수입과 지출에서 뺀 여유자금이 약 94조 6,700억입니다. 대부분 만기회수가 됐던 것을 다시 또 재투자하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2018년도 여유자금 배분(안)은 주식 쪽에서 국내, 해외 합해서 18조 5,100억 원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하고 채권 쪽에는 62조 6천억 원, 그리고 대체투자 쪽에 13조 4,900억 원을 이렇게 배정을 하면 31쪽 오른쪽에 음영 표시된 것이 2018년 말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주식비중은 36.4%, 물론 세부적으로 국내 18.7%, 해외 17.7%, 그다음에 국내채권 47.1%, 해외채권 4%, 대체투자가 12.5%, 결국 아까 중기자산배분(안)의 스케줄, 그렇게 하는 중간스케줄이 될 것이다, 왼쪽과 같이 2018년도 여유자금 배분 회수 운용을 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자산배분(안)이 그렇게 배분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32쪽에 승인 조건은 전년도와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상호 부위원장 :** 네. 동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희 위원 :** 짧게 하나만 건의사항 드릴게요. 이게 지금 지출의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한 6,8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국민들이 알면 조금 화가 날 것 같아요. 제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지금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돈이 재정에서 트랜스퍼 되고 있는데 많다면 많은 금액이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최소한 국민들이 부금으로 부은 것 정도는 터치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운영비, 그러니까 국민연금 직원 분들 급여 또 여기 지금 건물, 그런 것 정도는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라든지 국민연금도 그렇고 그런 것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상호 부위원장 :** 이 얘기는 저도 누차 얘기하고 한 건데 그 말씀 안 들으려고 이찬우 위원님이 안 오신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 늘 얘기하는데 하신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인 재정 여력 때문에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현재 기금이 쌓여 가는 그런 단계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나중에 전체 기금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데. 아마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 기금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른 사회보험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여력의 한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음에 기재부 계실 때 그때 다시 또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갈음하면 좋겠습니다. 네.

○ **윤경식 위원 :**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우리가 국민연금에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민연금공단 운영지원비가 대부분 인

건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7년하고 2018년을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좀 더 많이, 인원도 좀 증가해야 되고 또 인건비 상승도 있어야 되고 우수인력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별로 변동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계획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업비에 위탁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들을 지출할 텐데 그런 게 여기에 반영돼 있는 건지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전체 우리가 운영하는 자산 대비 100% 정도를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해외연기금하고는 어떤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자료가 제시가 돼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민연금 운용하는데 사업비와 운영비들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 번 제시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상호 부위원장 :** 이것은 간사께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재혁 간사 :** 네. 사실 결론적으로는 아까 김광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해외연기금에 비해서 우리 국민연금공단의 인력 정원 숫자라든지 또 특히 기금운용본부의 인건비 수준이라든지, 기금운용본부뿐만이 아니고 사실 숫자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어떤 면에서 말하면 국민들은 우리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을 굉장히 일은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또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사실 그런 형편입니다. 외국과 비교한 자료가 지금 당장은 없는데요. 미국과 비교한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또 앞으로의 목표가 저희가 따로 설정된 바는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음 번 회의 때, 아니면 그 전에라도 준비되는 대로 이메일로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저도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획재정부에 예산편성추가지침을 수정해서 받은 게 언제였나요?

○ **양윤석 국민연금재정과장 :** 저번주 금요일이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런데 제가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갖는 게 만약에 지금 현재 31페이지에 보면 국내주식이 18.7%고 해외주식이 17.7%인데 지금 여유자금 배분 표의 설명이 30페이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1번 항목의 여유자금 배분은 18.7%가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18.7%가 아니라 한 4.8%밖에 안 되는데 따옴표로 참고표 되어 있는 국내주식 18.7% 문구가 실질적으로는 2번 항목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번 항목은 아니죠. 2018년도의 여유자금 배분은 이 퍼센티지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금방도 말씀들 했지만 현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에 어떤 드라이브를 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국내주식을 '18년도에 9천억만 투자하고 해외주식을 무려 17조 6천억을 투자하고, 해외채권, 국내채권, 채권은 관계없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국회나 또 새 정부에서 이것을 용인을 못해 주겠다, 또 수정하자고 했을 때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사항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 **양윤석 국민연금재정과장 :** 일단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받고 그다음에 이것을 기획재정부로 제출을 합니다. 보통 예산은 부처에서 바로 제출을 하는데요.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되고요. 그럼 기재부가 사업 하나하나 꼭지마다 다 심의를 합니다. 한 3개월에 걸쳐서. 그러고 나서 정부예산을 다 모아서 국회에 제출하게 되고 국회에 가면 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또 예산·결산위원회 가서 또 심의를 받고요.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됩니다.

○ **이수철 운용전략실장 :**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앞에 자산배분에서 결정하신 18.7% 국내주식 비중은 31쪽에 있는 전체 포트폴리오 656조 원에 해당하는 18.7%입니다. 30쪽에 있는 이 배분금액은 저희가 2018년 동안에 들어오는 여유자금 94조 6,600억 원에 대한 배분입니다. 그럼 여유자

금 94조 6,600억 원은 매년도에 채권 만기돼서 도래해 오는 금액, 그다음에 기타 다른 자산에서 회수되는 금액, 그다음에 보험금 받은 것에서 연금 지급한 것을 나눈 금액을 다 합해서 추산을 해 봤더니 94조 6,600억 원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이것을 각 자산별로 이 정도로 배분을 하면 오른쪽 표에 있는 기금 전체 금액의 목표비중을 맞출 수 있다, 이 개념으로,

○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31페이지에 있는 포트폴리오가 18.7%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30페이지에 있는 국내주식 18.7%, 해외주식 17.7%,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31페이지의 포트폴리오 퍼센티지잖아요. 그렇다면 이 참고표에 있는 여유자금 '18년도 배분은 18.7%가 아니라 훨씬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줄이 31페이지로 옮겨가고 30페이지에 있는 표 분석을 했을 때 퍼센티지가 달라졌을 때 과연 우리가 여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오케이해서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또 위로 올라가면서 국내주식 배분이 '18년도에 왜 이렇게 갑자기 적어지느냐고 만약에 이의가 온다면 우리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사항이, 좀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권위가 있어 지는지, 그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 **국민연금재정과 담당사무관 :** 국민연금재정과의 담당사무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0쪽에 별표로 표시돼 있는 부분은 첫째 줄 동그라미에 '18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비중, 그것에 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기자산배분에서 결정했던 2018년도 이행계획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코멘트를 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중기자산배분에서 이행계획으로 비중을 결정해 놓은 것은 기재부나 국회에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된 목표비중은 확정이 되고 기재부에서 지출사업이나 수입계획이 조정될 수는 있지만 그 비중 자체를 변경시키지는 못합니다.

○ **김상호 부위원장 :** 네. 설명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있으면 말씀주시죠. 네, 정혜경 위원님.

○ **정혜경 위원 :** 질문이 있어서. 출산크레딧 관련한 질문입니다. ‘17년 1억 원에서 4억 원 증액한 5억 원으로 제출을 하셨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17년도에 3억 4천만 원 정도로 했다가 아마 예산심의과정에서 조절이 됐나 봐요. 이게 어디서 조절이 된 거예요? 기재부나 아니면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감액이 된 겁니까?

○ **양윤석 국민연금재정과장 :** 작년에 아마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위원회 의결로는 국가 일반회계에서 전액 다 100%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걸로, 그런데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그냥 기존대로 30% 수준대로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혜경 위원 :**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출산크레딧 5억 원이면 여기 신규수급자가 442명으로 기재돼 있는데 출산크레딧 대상자를 도대체 얼마나 커버할 수가 있는 거죠?

○ **장재혁 간사 :** 지금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출산크레딧, 지금 둘째 아부터 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첫째 아부터 그런 입법발의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게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이 안 돼 왔었죠.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아마 이미 2015년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연금 개혁을 할 때 그때 공적연금강화특위에서도 여야 간에 상당 부분 출산크레딧 정도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었죠.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돼 왔었고. 그래서 지금 이 내용까지는 거기에 반영이 안 된 채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방향이 기재부라든지 우리가 지금 새로운 정부가 왔고 그다음에 출산크레딧이라든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과거의 그런 공적연금강화특위 때 합의내용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나 아직 픽스가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을 뿐이지 그 부분은 앞으로 올 정기국회 때라든지 아니면 기재부와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혜경 위원 :**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행 30%에서 당연히 100%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상호 부위원장 :** 참고로 정혜경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왜 이렇게 금액이 적은가 하면 현행법에 의하면 출산크레딧의 경우에 보면 출산을 두 번째 한 사람부터 12개월, 셋째 아면 18개월, 넷째 18개월 해서 다섯째부터 50개월로 돼 있는데 현행법에 의하면 급여가 국민연금 수급이 확정된 시점부터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전에 출산한 사람이 2018년도에 급여가 신규로 연금수급권이 확보되면 그 제도로 가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 정혜경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내년도에 출산을 하면 그때 출산크레딧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년에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나 본인이 20년이나 30년 후에 연금수급권이 확보되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간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출산크레딧에 실제로 발생한 것보다 월등히 작은 금액만 놓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 **송원근 위원 :** 마이너한 건데요. 27페이지 보면 지출계획에 국민연금공단 사옥확보 사업, 그다음에 국민연금 복지사업, 이게 ‘17년, ‘18년 계획이 보내주신 자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에는 국민연금공단 사옥확보 사업이 ‘18년 계획에 한 100억 원 이상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었고 복지사업도 조금 더 늘어나는 걸로 돼 있었는데,

○ **이원희 위원 :** 그게 최근에 기재부에서 예산편성에 10% 전체적으로 절감하는 게 지난 주 금요일 날 지침이 와서 하루 이틀 사이에 작업해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 **송원근 위원 :** 비용배분이 달라졌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 **이원희 위원 :** 네,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10% 절감하는 것 적용하면서.

○ **김상호 부위원장 :** 또 의견 있으신가요?

그럼 의견 없으신 걸로 알고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라. 보고사항 : 『2017년도 3월 말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잠정)』

○ **김상호 부위원장 :** 지금 보고 안건이 하나 남아 있는데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갈음을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님들,

○ **윤경식 위원 :**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안건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었는데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면 예년처럼 제가 이메일로 질문을 드리면 다음 번 회의 때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상호 부위원장 :** 네. 그것은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그것은 간사님께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늘 하시던 얘기가 위원장께서 회의관리능력이 부족해서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저도 오늘 그 축에 들어가는 것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짧은 기간 동안에 아주 건설적이고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폐회 09시 48분)

위 會議錄은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 기금운용위원회

會議內容과 相違없이 速記法에 의하여 記錄, 作成되었음을

確認함.

2017年 5月 25日

도울速記事務所

速 記 士 姜 朱 映